

『영미연구』

제53집 (2021): 21-43

<http://doi.org/10.25093/ibas.2021.53.21>

## 어느 돌봄 노동자의 고백: 돌봄 위기의 시대 『나를 보내지마』 읽기

김 부 성

단독 / 이화여자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한 돌봄의 위기 문제와 관련, 가즈오 이시구로의 2005년 소설 『나를 보내지 마』가 돌봄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돌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본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1인칭 화자인 캐시가 추구하고 수행하는 역량이자 실천으로서의 돌봄을 소설 속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배경에 놓고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의 확산과 생명과학 붐 속에서 헤일샴의 설립자 마담과 에밀리 선생이 학생들에게 실험한 예술교육이 전통적 서구 인본주의 교육의 시대착오성과 실패를 드러내는 가운데 돌봄 역량 양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한다. 이시구로의 소설은 돌봄 노동의 부담을 전적으로 복제인간 개개인에게 지우는 생명복제 프로그램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가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돌봄의 양면성, 대안적 돌봄 친족, 공공공간과 공유 자원, 나아가 돌보는 공동체에 대해 사유할 여지를 남긴다. 돌봄을 중심에 놓고 읽을 때 『나를 보내지 마』는 서구의 전통적 인본주의 개념으로서의 개인이 지닌 돌봄 주체로서의 한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취약성과 생명체 간 상호의존성, 상호연결성을 긍정하는 돌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텍스트, 즉 돌

봄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는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주제어:** 돌봄 위기, 돌봄 노동자, 예술교육, 상호의존성, 『나를 보내지 마』

## I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는 2005년 출판 당시 평단의 찬사를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비평적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비평가들은 이시구로 특유의 소설기법인 신뢰할 수 없는 화자(unreliable narrator)의 발화 방식을 기존 작품과 연속선상에 놓고 분석하거나, 인간복제기술과 장기적출이라는 소재가 제기하는 윤리적 논쟁을 디스토피아 문학 전통과 의료인문학 차원에서 논하는가 하면, 헤일섬(Hailsham)이라는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 주인공들의 유년기를 성장소설과 학교소설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기도 한다. 작품이 그리는 인간과 복제인간의 관계에 대한 비평가들의 시선은 크게 복제인간을 “우리”와 동일시하는 입장과 “타자”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이 작품을 “죽음의 문화”(a culture of death)를 그린 소설로 보는 제임스 우드(James Wood)는, 독자들은 작품 속 복제인간들의 헛된 노력 끝에 느끼는 공허함을 보며 결국 우리 삶의 공허함을 생각하게 된다고 평한다(Beedham and Tredell에서 재인용 138). 그에 반해 애슐리 도슨(Ashley Dawson)은 이 소설이 “타자의 삶에 공감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다루는 2000년대 영소설의 주된 경향을 반영한다고 보며, 소설 속 어느 인물도 문제 삼지 않는 복제인간의 장기적출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수명연장이라는 설정과 관련해 복제인간들을 “우리가 현재 익숙해져 있는 생활수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거나 종국에 파괴되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규정한다(83).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 담론과 관련해서는 이 소설을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작품으로

보거나(Black 785),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 동물을 포함한 비인간을 희생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여기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a critique of anthropocentrism)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우세하다(Walkowitz 224).

이 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한 돌봄의 위기 문제와 관련, 『나를 보내지 마』가 돌봄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돌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본다. 이미 고령화시대 가족 돌봄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돌봄 재난이라 할 만큼 사회 곳곳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이들과, 즉 의료인들과 돌봄 기관 종사자들을 비롯해 노인,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절한 조치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많은 직장인들과 구직자들은 지원 삭감, 인원 감축, 채용 시장의 위축을 경험했고, 위기가 증폭시킨 불안은 혐오주의 범죄의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돌봄의 위기는 곧 여성의 위기가 되었다. 아이들이 보육시설과 학교에 갈 수 없게 되면서 당장 아이 돌봄과 가사노동의 문제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 되었다. 이시구로의 소설은 1990년대 후반 영국을 배경으로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주인공들의 유년시절을 아우르고 있지만, 현대의 돌봄 시스템을 둘러싼 질문들에 관여함으로써 돌봄 위기와 소설이 시사하는 사회적 문제 간 연속성을 암시한다. 이는 특히 헤일샴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복제인간들은 장기기증을 시작하기 전 몇 년 간 반드시 간병사(carer)로 복무해야한다는 소설 속 설정과, 주인공이자 화자인 캐시 H. (Kathy H.)가 전문 간병사이자 기억과 감정의 서술자로서 구사하는 직업적, 감정적 차원의 돌봄의 언어를 통해 드러난다.

이 글은 최근 대두된 돌봄의 윤리 및 위기 담론과 돌봄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참조함으로써 돌봄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작품 비평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가령 브루스 로빈스(Bruce Robbins)는 작품 속 돌봄의 공적인 제도화가 돌봄이라는 주제 전반과 돌봄의 실패 등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고 논평한다(290). 그런가하면 앤 화이트헤드(Anne Whitehead)는 헤일샴 학생들이 전문 간병사로 훈련을 받는다는 설정과 헤일샴의 문예교육이 학생들 간 정서적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이타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설정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56).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으며, 돌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sup>1)</sup>가 2020년 출판한 『돌봄 선언』 (*The Care Manifesto*)의 주요 논점을 참조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는 무관심(carelessness)이 지배하고 돌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carewashing)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돌봄”을 우리 삶과 정치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돌봄(care)의 어원이 “보살핌, 관심, 염려, 슬픔, 비탄, 곤경(care, concern, anxiety, sorrow, grief, trouble)”을 의미하는 고대영어 *caru*에서 왔음을 지적하며(27), 돌봄을 “사회적 ‘역량’이자 삶의 복지와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실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는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5). 또한 이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모든 돌봄이 우리의 가정에서뿐 아니라 친족에서부터 공동체, 국가, 지구 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적 돌봄(universal care)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돌봄의 의미를 확장한다(19). 이 같은 접근 방식을 참조하여 이 글의 전반부는 1인칭 화자인 캐시가 추구하고 수행하는 역량이자 실천으로서의 돌봄을 소설 속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배경에 놓고 분석한다. 특히 이시구로가 광의적 차원의 돌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음을 드러내는 사례로서 이시구로의 또 다른 전문 돌봄 노동자 화자인 『남아있는 나날』 (*The Remains of the Day*)(1988) 속 스티븐스의 언어와 캐시의 언어를 비교해 볼 것이다.<sup>2)</sup> 후반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의 확산과 생명과학 붐 속에서 마담과 에밀리 선생이 시도한 헤일삼의 예술교육이 전통적 서구 인본주의 교육의 시대착오성과 실패를 드러내는 가운데 독자들에게 돌봄 역량 양성의 대안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할 것이다.

## II

『나를 보내지 마』에서 일인칭 화자 캐시는 간병활동이라는 현재의 일상과 헤일삼과

코티지(the Cottages)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기억을 교차적으로 서술한다. 소설은 캐시가 자신을 간병사로 소개하며 돌봄의 직업전문성(professionalism)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 이름은 캐시 H. 서른한 살이고 11년 이상 간병사 일을 해왔다. 11년이라면 꽤 긴 세월처럼 들릴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내게 올해 말까지 8개월을 더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내 경력은 거의 12년에 이르게 된다. 이제 나는 간병사로서 그렇게 오랜 경력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안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환상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아주 훌륭한 간병사인데도 일을 시작한 지 겨우 2~3년 만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정말이지 공간 낭비일 뿐인 형편없는 간병사인데도 14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 온 사람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적어도 한 명 이상 떠올릴 수 있다. 내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 왔고, 나 역시 대체로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내가 맡은 기증자들은 언제나 기대치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그들의 회복 과정은 인상적일 정도로 양호했고, 심지어는 네 번째 기증을 앞두고서도 ‘동요 상태’로 판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 어쩌면 나는 지금 내 자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일을 잘 해내는 것, 특히 내가 맡은 기증자들을 통제해 ‘평온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내게 큰 의미가 있다. 나는 기증자들에 대해 일종의 본능적인 감각을 발동해왔다. 그들 곁으로 가서 위로해 주어야 할 때, 그들을 혼자 있게 해 주어야 할 때, 그들이 하는 온갖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할 때,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말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것이다.<sup>3)</sup> (3)

작품의 첫 줄에 등장하는 “간병사”라는 단어는 로빈스가 지적하듯 공감과 관련된 (congenial) 일상 단어인 “care” 뒤에 접미사 -er을 붙여 공무를 표현하고 직종을 일컫는 용어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기이(mysterious)하다(Robbins 291). 자신을 31세의 12년차 간병사라 밝히는 캐시의 언어는 돌봄 노동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캐시는 자신이 돌보는 기증자들은 언제나 예상보다 경과가 좋으

며 거의 “동요”(agitated) 상태로 분류되지 않고 “평온”(calm)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언제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언제 혼자 있게 해주어야 하며, 언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언제 이야기를 끊어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고용주로 여겨지는 “그들”이 올해 말까지 8개월을 더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에게 간병일을 “환상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는 캐시의 자부심은 다음 문단에서 자신이 돌봄 대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최근 6년간 누려왔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3). 첫 장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캐시의 자랑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까닭은 소설 바깥의 현실에서는 간병사라는 직업이 오랫동안 중장년층 여성들이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업군으로 평가절하 되어왔다는 사실과의 괴리 때문이다. 캐시는 “간병사는 기계가 아니”며 “무한한 인내와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기에 선택권이 있다면 자신과 같은 부류를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를 통해 “자신이 맡은 기증자들이 겪는 모든 단계를 공감”(feeling for my donors every step of the way)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4). 이렇게 이시구로 작품 특유의 일인칭 화자의 고백 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소설은 주인공 화자가 간병사라는 설정을 취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영역을 조명한다.

이시구로가 1장을 구성한 방식은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직접 돌보는 행위를 포함하는 보살핌(caring for)과 누군가의 안위를 염려하여 마음을 쓰는 정신적 돌봄(caring about)이 둘이 아님을 시사한다.<sup>4)</sup> 간병사로서의 직업전문성을 논하는 1장의 전반부가 돌봄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직접적인 “보살핌”으로서의 돌봄을 다룬다면, 후반부는 토미에 대한 캐시의 “관심”과 “염려”를 드러내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토미의 “곤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토미가 왕따를 당하는 것은 그가 게으르고 창의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탓이라고 하는 자기 무리의 친구들에 반해, 캐시는 토미가 입고 있는 폴로셔츠를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 옷을 입고 축구를 했다가는 셔츠가 엉망이 되서 상심할 것을 “염려”하는 유일한 인물로 그려진다. 곧 자신에게 일어날 곤경을 알지 못한 채 기대에 차 있는 토미를 바라보며 “찌르는 듯한 작은 통증을 느낀 것 같았다”(maybe I did feel a little stab

of pain)고 회상하는 캐시의 토미에 대한 염려는 앞서 캐시가 간병사의 역량으로 언급한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표출된다(8). 이어지는 2장에서 토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캐시가 “배신감을 느껴 그의 감정에 대한 염려를 거두었다”(I felt betrayed, and didn't care how he felt)고 하는 부분 역시 캐시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높은 공감 역량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24). 이렇게 시작되는 캐시의 기억의 서사는 보살핌, 관심, 염려, 슬픔, 비판, 곤경의 스펙트럼을 폭넓게 오간다.

캐시의 감정의 스펙트럼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혼재된 돌봄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더 케어 컬렉티브에 따르면 돌봄이 촉발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염려는 다른 모든 인간의 감정과 같이 변덕스럽고, 종종 다른 필요나 욕망, 또 개인적 만족감이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정서적 상태와 부딪히거나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과 얽힌다”(The Care 28).<sup>5)</sup> 따라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모두 우리의 돌봄 실천과 돌봄 역량에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28). 캐시와 같은 모범적인 간병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간병사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캐시의 지론은 소설 후반부인 3부의 시작에 다시 한 번 나오는데, 첫 장과는 달리 캐시는 간병사로 지내면서 겪는 고독과 고단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하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간병사가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혼자 차를 몰고 이 센터에서 저 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먼 길을 다녀야 하고, 토막잠을 자야하고, 누구에게도 걱정거리를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와도 함께 소리 내어 웃을 수 없다. [...] 늘 시간에 쫓기듯 그렇게 않을 때는 극도로 지쳐서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긴 근무 시간과 여행, 수면 부족은 존재 내면으로 슬며시 들어와 당신의 일부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와 시선과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그 사실을 알아채게 된다. (207-208)

소설 속 복제인간 장기이식 프로그램은 한 명의 간병사가 전국 곳곳에 있는 회복센터를 돌아다니며 여러 “기증자” 복제인간들을 동시에 쉴 새 없이 돌봐야하는 시스템에 기대어 운영된다. 위 단락에서 드러나는 간병사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이 돌보는,

또 머지않은 미래 자신의 모습일 기증자나 다른 간병사들과 심리적 유대를 이루기 힘든 환경 속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캐시는 이러한 고독과 고단함이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자신 역시 신경이 날카로워지지만 적어도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고 말한다(209). 캐시가 우연히 주차장에서 만난 헤일삼 시절 친구 로라가 자신이 얼마나 지쳐있고, 자신이 돌보는 기증자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신이 상대해야 하는 간호사나 의사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등 간병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부분은 차라리 독자가 캐시로 인해 간과할 수 있는 돌봄 노동의 애환을 좀 더 직설적으로 들려준다. 로라의 불평은 직접적인 대인 돌봄(hands-on caring)이 보람을 떠나서 “우리를 가장 감당하기 힘든, 심지어 때로는 보기에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적 면모와 맞닥뜨리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The Care 27).

간병사의 자부심과 직업전문성을 논하는 캐시의 언어의 아이러니한 특성은 이시구로의 또 다른 돌봄 노동자 화자인 『남아있는 나날』의 스티븐스를 떠오르게 한다. 35년간 집사로 복무한 스티븐스는 자신의 오랜 주인인 달링턴 경 사후 미국인 패러웨이 씨가 사들인 달링턴 홀이라는 “패키지의 일부”(part of the package)로 남아 집사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Remains 242). 캐시와 스티븐스의 언어는 각각 간병사와 집사로서 오랜 경력에서 비롯된 돌봄 노동 수행자로서의 자부심을 표현하며 유능한 간병사, 위대한 집사의 역량이라는 주제에 천착한다는 점에서, 또 이러한 주제를 통렬한 감정을 수반한 기억의 서사와 교차시키며 발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대저택을 돌보고 다른 하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집사는 스티븐스라는 인물을 통해 자기희생, 헌신, 근면함, 감정의 절제,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주인 가문에 대한 자부심 등의 특징을 가진 직업군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캐시와 스티븐스가 유능한 간병사, 위대한 집사의 역량을 논하는 방식은 고용주에게 인정받고 싶은 정서와 직업에서 기인한 정체성이 삶의 대부분이 된 나머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려는 자기합리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시구로가 『남아있는 나날』을 집필한 1980년대 후반



과 『나를 보내지 마』의 배경이 되는 1990년대 영국은 마거릿 대처 내각이 “모든 종류의 돌봄이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는 믿음을 강요하는 가운데 자기관리를 잘하는 “선량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에 대한 기만적 정의”가 정착된 시대(The Care 12). 캐시가 여러 회복 센터를 오가는 중 틈틈이 토막잠을 자는 좁은 자동차 안과 간병용 간이침대, 그리고 스티븐스와 마찬가지로 집사직을 평생 수행한 스티븐스 아버지의 “감방”(a prison cell)을 연상시키는 비좁고 초라한 방은 열악한 환경을 타하지 않는 그들의 자기희생적 면모를 드러낸다(*Remains* 64). 캐시와 스티븐스는 자신들의 고용주인 “그들,” 혹은 간병사 제도를 포함한 장기적 돌봄 시스템의 폭력성에, 달링턴 경의 나치 독일에 대한 시대착오적 연민과 유대인 혐오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누구보다 이상적인 간병사, 이상적인 집사 역할을 수행하며 외로움과 자기고립을 초래하는 경쟁적인 개인주의를 내재화한다. 서사의 거의 막바지에서까지 스티븐스는 “집사의 의무는 훌륭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지 “중대한 나랏일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고 믿으며(*Remains* 249), 캐시는 간병일이 힘들지 않냐고 묻는 토미에게 “어쨌든 좋은 간병사가 있다는 건 중요하잖아. 그리고 나는 좋은 간병사야”라고 답한다(*Never* 282).

독특하게도 이시구로는 이러한 완벽한 전문 돌봄 노동자상을 그리는데 있어 그들의 “재생산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스티븐스는 직장동료인 켄튼 양(Miss Kenton)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억누른 채 평생 독신으로 지내왔으며, 캐시는 복제인간으로 애초에 생식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자신의 전 고용주인 달링턴 경으로부터 곧 결혼을 앞둔 대자(godson)에게 자기 대신 “생명의 사실”(the facts of life)에 대해 알려 줄 것, 즉 성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받자 스티븐스가 정원의 거위, 꽃, 물고기의 비유를 들어가며 “자연의 영광”(the glories of nature)을 운운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그의 무욕적인 삶의 궤적을 드러낸다(*Remains* 90). 캐시가 헤일삼 기숙사 방에서 홀로 남아 “네버 렛미 고”라는 제목의 주디 브리지워터(Judy Bridgewater)의 노래를 들으며, 가사의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잔잔하게 아이를 바랐으나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여자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아기를 품에 안는 상상을 몸

짓으로 표현하는 장면은 돌봄 관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마더링(mothering)을 모사한다는 점에서 캐시가 자부하는 돌봄 역량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읽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독해는 마더링을 돌봄 역량의 이상화된 원형으로 환원시킬 소지가 있다. 오히려 이 장면은 돌봄이 “역사적으로 ‘여성성’과 연관되어 평가절하되었고,” “재생산이라는 여성의 중심적 역할과 묶여 여성의 일로 여겨졌음”을 상기시킨다(The Care 24). 캐시는 헤일삼의 성교육을 통해 복제인간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명 잉태로 이어지지 않는 성적 쾌락의 추구가 부도덕하다 여기는 “인간”처럼 자신의 성적욕망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자신의 근원자(possible)의 얼굴을 포르노 잡지 속에서 찾으려는 집요한 행위를 통해, 그리고 자신을 성적으로 난잡하다고 여기는 루스에 대한 회피적 감정반응을 통해 드러난다. 캐시는 이런 점에서 돌봄 역량 주체가 가질 수 있는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한 높은 공감과 염려가 다른 욕구와 부딪힐 때 부정적인 감정과 얽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 III

앞 장에서는 캐시가 구사하는 전문직업적 차원의 돌봄의 언어와 기억과 감정의 언어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접근해보았다. 『나를 보내지 마』에서 정서적 차원의 돌봄 역량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표면적인 충돌지점은 이시구로가 이렇듯 이윤추구적이고 착취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예술과 문학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과 문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낭만적 믿음은 특히 소설 속에서 헤일삼의 문예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부금 확보를 통한 복제인간 성장 과정 전반의 복지 향상에 달려있다는 설정과 만나 추상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닌 당장 그들의 생명연장이 달린 문제로 다루어진다. 헤일삼의 설립자인 마담과 에밀리 선생은 소설 후반부

자신들을 찾아온 캐시와 토미에게 학생들의 만든 우수한 예술 작품을 선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복제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복제인간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함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자 했다고 말한다. 화이트헤드가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이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문학[더 나아가 광의적인 차원의 예술]이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가”(can literature express our innermost selves)라는 문제와, 캐시가 구사하는 “공감과 상상력의 언어가 돌봄의 관계들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어휘를 제공하는가”(does the language of the sympathetic imagination provide a helpful or an adequate vocabulary to articulate relations of care)라는 질문을 함께 놓고 고민하게 한다(Whitehead 63).

헤일삼의 독특한 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린 수채화나 드로잉, 도자기, 조각품, 자작시 등을 교환회(the Exchanges)에 출품하고 받는 교환권(token)으로 판매회(the Sales)에서 의류, 필통, 액세서리, 카세트테이프 등 학교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중고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맞물려 돌아간다. 이러한 시스템은 앞에서 다룬 토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에 소질이 없는 학생은 열등하거나 문제적으로 여겨지는 학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우수한 작품은 마담이 따로 뽑아 “갤러리”(the Gallery)라는 곳으로 가져간다. 헤일삼을 졸업한 학생들은 스무 살 무렵 코티지라는 대학과 유사한 기관으로 진학하는데, 최대 2년간 몰두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정해 코티지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일종의 졸업논문을 써서 헤일삼의 가디언들에게 제출하면 그들과 맺는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이 난다. 마담과 에밀리 선생은 학생들의 우수 작품이 “그들의 영혼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보았지만 이러한 전제는 회의적인 의문을 낳는다. 학생들이 만드는 조각품의 주재료는 못쓰게 된 캔이나 병뚜껑, 마분지 같은 폐품뿐이며(16), 실제로 코티지에서 졸업논문에 몰두하는 헤일삼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캐시의 서술 속에서 이미 독자들은 그 전제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116).

이와 관련해 헤일삼의 예술교육의 특징을 논한 비평가들은 대체로 헤일삼의 인문 예술교육이 예술작품을 교환가치로 환원하는 가운데 인본주의의 실패를 드러낸다고

본다. 샤민 블랙(Shameen Black)은 이 소설에서 통용되는 영혼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착취적인 사용가치 담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예술개념이 비자발적 장기 이식과 유사한, 착취의 한 형태임을 고발하는 소설이라고 본다(785). 마크 롤린스(Mark Rollins)는 이시구르가 어떻게 선물 교환의 원칙이 상품화 관행에 의해 훼손되고 이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헤일삼의 교환회와 판매회에서 학생들의 예술품이 상품처럼 “소비되는” 방식, 강요된 노동을 일종의 재능기부(gift labor)로 착각하게 하는 “간병사”라는 단어, 장기 적출 프로그램을 “기증”이라는 완곡 어법으로 포장함으로써 선물과 상품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수법은 복제인간들로 하여금 장기 적출을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본다(351-53).

네이션 스나자(Nathan Snaza)는 마담과 에밀리 선생의 신봉했던 교육철학의 실패와 관련, 이 작품이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education is what makes humans human)라는 개념의 영향 아래 있는 서구 교육 관행과 서구식 교육기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본다(215). 그는 플라톤, 장 자크 루소, 존 듀이, 파울로 프레이리로 이어지는 이러한 전통적 교육 개념을 “인간화 교육”(humanizing education)이라고 부르며 소설이 인간화 교육이 실제로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본다(271). 독자는 헤일삼 학생들이 만드는 예술품이 아니라 곧 다가올 죽음에 굴레지어진 채 기억의 형태를 서서히 잡아가는 가운데 영혼을 드러내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복제인간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271). 이와 유사하게, 마틴 라일(Martin Ryle)은 헤일삼 예술교육이 전제하는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우리의 인간성을 보여준다”는 관점은 칸트와 쉴러로 대표되는 유럽 미학 및 교육학 전통에 뿌리를 둔다고 본다(70).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예술품이 창작자의 영혼을 드러내며 따라서 인간성을 보여준다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런데 헤일삼의 문예교육은 설립자들의 교육 목적과 별도로, 혹은 그와 무관하게, 학생들 간 정서적 유대감과 이타적인 행동을 육성하는, 일종의 부차적 효과를 낳는 측면이 있다. 소설 속 선물 교환의 원칙이 상품화 관행에 의해 훼손당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롤린스는 선물의 정의를 상품과는

달리 구입하거나 자기 뜻대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여되는 것,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priceless) 것, 대가에 대한 보장 없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수여를 통해 사람 간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351), 캐시가 아끼던 주디 브리지워터 카세트테이프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루스가 판매회에서 전혀 다른 장르의 음악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사서 선물해준 사례와, 토미가 노포크(Norfolk)의 중고품 가게에서 주디 브리지워터 카세트테이프를 찾아내 캐시에게 선물해준 사례가 이 정의에 부합한다. 두 카세트테이프 모두 캐시에게는 먼저 떠난 두 친구와의 감정적 유대를 떠올려주는 매개체가 된다.

헤일삼 학생들은 역설적이게도 바깥세상의 착취적 상황이 조성한 그들만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사물을 쉽게 소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가운데 사물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와 공유 자원의 개념을 체득한다. 토미의 폴로셔츠, 루스의 필통, 캐시의 카세트테이프처럼 헤일삼의 학생들은 사물을 수집하고 사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장한다. 헤일삼 학생들의 독특한 개성은 예술창작이 아니라 오히려 교환회에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신중하게 고른 다른 학생들의 예술 작품과 판매회에서 산 물건들을 수집해 각자 자기 이름이 써여 있는 나무함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수집가로서의 면모에서 드러난다. 발터 벤야민은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수집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사물이 본래의 모든 기능에서 벗어나 . . . 사물들과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긴밀하게 관련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유용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논한다(532). 그는 또한 “수집은 실천적인 상기의 한 형식”(533)이며 “진정한 수집가는 사물을 그것의 기능적인 연관들로부터 떼어놓는다”고 말한다(537). 헤일삼 학생들은 한 때 사물에 부여되었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떼어내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나 가장 소중한 시간에 대한 추억을 수집한다. 이러한 면모는 특히 캐시가 자신의 수집품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난다. 코티지에 진학하면서 나무함을 버린 루스와는 달리 캐시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컬렉션을 소중하게 여긴다. 소설 속에서 캐시에게 특별히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는 수집품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주디 브리지워터의 앨범은 앞서 다룬 에피소드에서 보았듯이 “네버 랫미 고”라는 곡의 사적이고 특수

한 의미뿐만 아니라 카세트테이프라는 사물 수집품, 일종의 오브제로서 캐시의 기억에 중요하게 작용한다.<sup>6)</sup> 또한 헤일삼 학생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한 워크맨으로 음악 돌려 듣기는 공동체 안에서 물건을 공유함으로써 예술을 향유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 유행은 “하나의 워크맨을 둘러싸고 몇몇 아이들이 폴밭에 앉아 헤드셋을 돌려가며 음악을 듣는” 것으로, 캐시는 “누군가 헤드셋을 쓰고 20초간 음악을 들은 다음 그것을 벗어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같은 카세트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일정 시간 후에는 놀랍게도 혼자서 그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처럼 전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103). 헤일삼의 “교환회”와 “판매회” 시스템은 (비록 바깥세상 사람들이 쓰다 버린 중고 물품만을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는 하지만) 더 케어 컬렉티브가 중고 물자의 재사용과 재분배를 권장하는 “새로운 기준”(new normal)의 예로 제시하는 공동체 내 기부 바자회, 옷 교환, 대안 화폐 제도 등과 유사성을 띤다(The Care 53). 캐시가 헤일삼에서 체득한 사물과 관계 맺는 방식, 즉 사물에 대한 돌봄의 태도는 오늘날 돌봄 위기를 초래한, “물건의 수명을 계획 하에 한정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다(52). 또한 돌봄 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극복 방안이 “모든 교육과 직업훈련이 돌봄과 그 실천을 강조”하고 “개개인의 돌봄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볼 때(62), 모든 복제인간들이 코티지 다음 단계에서 간병사 훈련을 받는다는 소설 속 설정은 착취적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볼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실효에 대해서 소설은 루스와 토미, 로라 등 훈련을 받았지만 간병사로서 소질이 없거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들을 보여주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한편 헤일삼의 흥망성쇠에 대한 에밀리 선생의 설명은 경제 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떻게 취약계층의 돌봄에 무관심하며 돌봄의 흔적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분위기를 서서히 퍼뜨려나갔는지를 알게 해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초 빠른 과학의 발전 속에서 생명복제기술이 암과 같은 불치병으로 간주되는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착되면서 초기 복제인간들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는, 인간과는 “별개의 존재,” “인간 이하”(less than human)의 존재로 제시된다(263). 에밀리

선생은 자신과 마담이 기존의 기증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헤일삼을 만들었으며 “인간적이고 교양 있는 환경에서 사육된다면 ‘학생’들 역시 일반인들처럼 지각 있고 지성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했다고 설명한다(261). 사회운동으로서 헤일삼의 영향력은 캐시와 토미가 재학했을 무렵인 1970년대 후반 최고조에 달해, 설립자들은 사회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지지와 막대한 기금을 약속받는다(262). 문학과 예술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헤일삼 설립자들의 관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합의 시기 무렵 문학을 통해 ‘좋은’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던 영국의 시대분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Sinfield 28). 또한 1950년대는 미국의 뉴딜정책과 1942년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내세운 모든 사람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과 지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에 따라 케인스의 복지 모델(Keynesian welfare model)에 기반한 전후 복지국가체제가 정착된 시기이기도 하다(The Care 60-61). 영국에서 이 같은 전후 복지국가 모델이 붕괴된 것은 1979년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 정권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부터다. 소설에서 헤일삼은 1970년대 후반까지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대처 집권기인 1980년대에 접어들어 제임스 모닝데일(James Morningdale)이라는 과학자가 생명복제기술을 이용해 초인적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시대의 흐름이 크게 바뀐” 것으로 설명된다(263-64). 이후 헤일삼 폐교와 경직된 신자유주의적 사회 분위기는 이제 남은 건 정부가 운영하는 거대한 “시설들”(homes)뿐인 현재로 이어진다(265). 복제인간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병원과 회복센터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토미가 기증자로 머무는 킹스필드(Kingsfield) 회복센터가 과거 가족용 휴가 캠프를 대중 개조하여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복제인간들이 거주하거나 자신들만의 대화를 위해 가는 곳은 농장터(코티지), 교회묘지, 폐쇄된 버스정류장 등 대부분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으며 버려지고 황폐한 장소들이다. 초창기 “최선을 다해 되도록 [그들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그들에 대해, 그들이 사육되는 환경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262, 264-265).

소설 속 (마담과 에밀리 선생을 포함한) 인간들의 복제인간을 향한 혐오와 두려움은 신자유주의와 팬데믹 상황 속 극우화된 사회분위기를 되짚어보게 한다. 특히 팬데믹 발발 이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돌봄 개념은 축소되어 친족과 같이 “우리 와 같은 사람들”에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편, 돌봄 노동은 “비천한”(abject) 육체를 다루는 일이기에 열등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묵은 인식을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The Care 39, 27-28). 이러한 경향은 소설 속에서 복제인간들끼리 서로를 돌보게 하는 설정, 그리고 “사람들은 [복제인간들의] 존재를 거부하게 여겼지만, 그들의 더 큰 관심은 자기 자녀나 배우자, 부모 또는 친구를 암이나 운동 세포 질환, 심장병에서 구하는 것”이라는 에밀리 선생의 말에서 강하게 환기된다(263). 또한 노쇠한 에밀리 선생의 휠체어를 미는 간병인 조지(George)가 건장한 체구의 나이이지리아인으로 제시될 때, 소설은 현실의 유급 돌봄 노동이 저임금, 적은 혜택, 낮은 사회적 지위, 긴 노동시간을 감내하는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상기시킨다(Kittay 141). 마사 너스바움(Martha Nussbaum)에 따르면 혐오란 우리의 동물적인 몸의 취약함과 유한함을 상기시키는 무엇에게 갖는 감정이다. 너스바움은 “혐오라는 감정 속에는 동물적 속성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결부된 오염으로부터의 회피”가 내재되어 있으며, “인간이 동물적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느끼는 불쾌함은 취약한 사람들과 집단에게 투영”된다고 설명한다(74). 즉 소설 속 인간들은 자신이 지닌 취약성과 자신의 몸이 폐기물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복제인간들에게 불쾌함을 투영하며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다. 더 케어 컬렉티브는 바로 이 육체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상호의존성을 긍정하는 것이 돌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역설한다. 이시구로의 소설이 헤일삼 바깥의 세상을 지탱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디스토피아적 설정에도 불구하고 캐시, 루스, 토미의 “인간보다 더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돌봄과 관련된 감정과 역량, 그리고 소설 제목이 시사하듯 서로를 기억 속에서 떠나보낼 수 없게 하는 상호의존성일 것이다. 곧 간병사 업무를 끝내고 기증자가 되는 캐시는 자신의 여생을 토미와 루스에 대한 추억을 소환할 시간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



무도 내게서 앓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서술한다(287).

## IV

지금까지 이시구로가 『나를 보내지 마』를 통해 돌봄의 문제에 관여하는 방식과 돌봄 위기 속에서 이 작품을 새롭게 읽는 방식을 다뤄보았다. 이 작품을 돌봄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품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돌봄을 중심에 놓고 읽을 때 『나를 보내지 마』는 인본주의적 예술교육의 낭만화를 통해 서구의 전통적 인본주의 개념인 개인주의의 한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취약성과 생명체 간 상호의존성을 긍정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텍스트, 즉 돌봄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는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시구로 특유의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가질 수 있는 폐쇄성이라는 한계 너머를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개인주의 전통에서 출발한 소설이라는 장르가 “개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진정한 대안,” “공포증을 유발하지는 않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기반을 둔 대안”을 상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낸시 암스트롱(Nancy Armstrong)의 논의와도 공명한다(25).

이시구로의 돌봄에 대한 주제적 관심은 최근작 『클라라와 태양』(*Klara and the Sun*)(2021)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이 소설에서 복제인간 간의 돌봄이라는 설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람 모습을 한 AF(Artificial Friend)라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 클라라가 몸이 약한 인간 소녀 조시를 돌보고 염려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친밀감을 그린다. 역시나 재생산할 수 없는 돌봄 주체를 일인칭 화자로 삼으며 이시구로는 돌봄에 무관심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역량이자 실천인 돌봄의 영역과 만날 수 있는지를 그림으로써 일종의 다름을 넘나드는 돌봄,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이 필요와 지속가능성에 따라 공평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난잡한 돌봄”(promiscuous care)의 가능성을 상

상한다(The Care 40).

#### Notes

- 1) 더 케어 컬렉티브는 각각 마케팅, 디지털 문화와 퀴어 연구, 사회학, 미국문학, 페미니즘 분야 학자인 안드레아스 차지다키스(Andreas Chatzidakis), 제이미 하킴(Jamie Hakim), 조 리틀러(Jo Littler), 캐서린 로튼버그(Catherine Rottenberg), 린 시걸(Lynne Segal)이 2017년 런던에서 조직한 학술 모임 단체다. 이들이 공동 집필한 『돌봄 선언』은 제목이 시사하듯 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한 선언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돌봄 담론을 정치, 친족, 공동체, 국가, 경제, 세상의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퀴어-페미니즘-반인종차별주의-생태사회주의”(queer-feminist-anti-racist-eco-socialist)의 정치적 비전으로서의 “보편적 돌봄”(universal care)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96).
- 2) 스티븐스의 직업인 집사(butler)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돌봄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며 여러 정책 제안서와 국회 관련 문서에서 보모, 가정교사, 정원사, 운전기사, 가정부 등과 함께 돌봄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
- 3) 『나를 보내지 마』의 긴 인용문은 김남주의 번역을 참조했다.
- 4) 돌봄의 윤리를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논의한 조안 트론토(Joan Tronto)는 『돌보는 민주주의』(Caring Democracy)(2013)에서 “대인 돌봄”(caring for), “정신적 돌봄”(caring about)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념과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적 돌봄’(caring with)”을 구분한다(The Care 21). 그러나 더 케어 컬렉티브는 이 같은 구분법이 역량과 실천적 차원에서 여러 돌봄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돌봄 선언』 1장 참조.
- 5) 『돌봄 선언』의 인용은 부분적으로 정소영의 번역을 참조했다.
- 6) 벤야민은 서민들이 19세기 무렵 다기(茶器)를 수집하던 문화와 관련해 수집품들 대부분이 값비싸고 희귀한 물건이 아닌 공산품이라는 점은 “매우 기묘한 사실”임을 지적한다(536). 왈코비츠는 소설 속 카세트테이프와 같은 복제된 공산품과 복제인간 간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고유성(unicqueness)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풍조가 결국 복제인간 살상을 통한 인류의 존속을 초래함을 보여주는 이 소설을 예술과 문화, 인간의 삶의 본질적 속성으로 여겨지는 고유성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235).

## 인 용 문 헌

-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역, 니케북스, 2021.
- 벤야민, 발터. 『아케이드 프로젝트 I』.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 이시구로, 가즈오. 『나를 보내지 마』. 김남주 역, 민음사, 2009.
- Armstrong, Nancy. *How Novels Think: The Limits of Individualism from 1719-1900*. Columbia UP, 2005.
- Beedham, Matthew, and Nicolas Tredell. *The Novels of Kazuo Ishiguro*. Palgrave, 2010.
- Black, Shameen. "Ishiguro's Inhuman Aesthetics." *Modern Fiction Studies*, vol. 55, no. 4, 2009, pp. 785-807.
- The Care Collective. *The Care Manifesto: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Verso, 2020.
- Dawson, Ashley. "The 2000s." *A Companion to the English Novel*, edited by Stephen Arata, Madigan Haley, J. Paul Hunter, and Jennifer Wicke, Wiley, 2015, pp. 71-86.
- Ishiguro, Kazuo. *Klara and the Sun*. Faber and Faber, 2021.
- \_\_\_\_\_. *Never Let Me Go*. Vintage, 2005.
- \_\_\_\_\_. *The Remains of the Day*. Vintage, 1989.
- Kittay, Eva Feder. "The Global Heart Transplant and Car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46, no. 1, 2008, pp. 138-65.
- Nussbaum, Martha.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Princeton UP, 2004.
- Rollins, Mark. "Caring Is a Gift: Gift Exchange and Commodification in Ishiguro's

- Never Let Me Go.*” *CEA Critic*, vol. 77, no. 3, 2015, pp. 350-56.
- Ryle, Martin. “Ishiguro’s Diptych: Art and Social Democracy in *The Unconsoled* and *Never Let Me Go.*” *boundary2* vol. 44, no. 2, 2017, pp. 57-73.
- Sinfeld, Alan. *Literature, Politics and Culture in Postwar Britain*. Continuum, 1997.
- Snaza, Nathan. “The Failure of Humanizing Education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Lit: Literature Interpretation Theory*, vol. 26, 2015, pp. 215-34.
- Tronto, Joan.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UP, 2013.
- Walkowitz, Rebecca L. “Unimaginable Largeness: Kazuo Ishiguro, Translation, and the New World Literature.” *Novel: A Forum on Fiction*, vol. 40, no. 3, 2007, pp. 216-39.
- Whitehead, Anne. “Writing with Care: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Contemporary Literature*, vol. 52, no. 1, 2011, pp. 54-83.

## Abstract

### Confessions of a Care Worker: Reading *Never Let Me Go* in a Time of Crisis

Boosu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essay examines the way Kazuo Ishiguro's 2005 novel *Never Let Me Go* thematizes the issue of care, a long-standing social problem that the coronavirus pandemic recently accentuates, mainly through the voice of a care worker. The first section of this essay analyzes care as both a capacity and a practice, pursued and performed by the first-person narrator Kathy, against the backdrop of neoliberalism the novel strongly hints at. The second section focuses on Hailsham's aesthetic education, experimented by its founders Madame and Miss Emily amid the spread of the Keynesian welfare state system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bioscience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and attributes its failure to an anachronism of the Western humanist tradition, while discussing whether Hailsham's educational model suggests ways to develop the capabilities of Hailsham students to hone their caring skills. While Ishiguro's novel depicts a dismal world that puts the burden of care work entirely on individual clones and that implicitly forces caregivers to internalize neoliberal values, it encourages readers to actively think about such things as ambivalences of care, alternative caring kinships, public community space, sharing resources, and caring communities. When putting care at the center, *Never Let Me Go* can be read as a text not only pointing to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ism based

on traditional Western conceptions of humanism, but also urging us to affirm our vulnerabilities and interdependence as members of communities.

**Key Words:** crisis of care, care worker, aesthetic education, interdependence,  
*Never Let Me Go*

논문접수일: 2021.09.27

심사완료일: 2021.10.14

게재 확정일: 2021.10.27

이름: 김부성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조교수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이메일: boosungkim@ewha.ac.kr